



대행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자유롭게 살려면 마음공부 밖에 없어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마음이 즉 불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내가 부처라고 하면서 그대로 부처노릇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즉 불이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삼학의 진의도 들어 있고, 두두물물

뭉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닦아라"하면 "닦을 게 뭐 있어서 닦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모두들 청산유수로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진짜 힘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다스리면서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허허, 이게 닦을 것도 없고 다스릴 필요 없구나, 다스리는 놈을 다스리는 그 자체를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 속에 헤아릴 수 없이 악업·선업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되돌아 본다면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바 그대로 인력이 돼서 하나도 남김없이 날날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은 속아요. 바깥으로 끄달려 물질세계에서 속고, 보고 듣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속아서 끄달리고...

그리고 그냥 마음이면 마음이지 왜 한 마음이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이 한몸을 봐도 한 마음입니다. 바깥에 모두를 봐도 한 마음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뼈와 살을 빌어서 몸 하나를 받았지만 과거에 살던 그 인연·인파로 인해서 악업도 응치고 선업도 응쳐서 이렇게 나온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상한지 모릅니다. 참 묘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조잡하기도 하며, 어떤 때 보면 땅에 붙어 사는 진똥물과 같기도 해요. 우리 한 그릇에 붙어서 진똥물처럼 사는, 하찮은 벌레와 같은 그런 기본도 들어요. 나무에 진똥물이 그냥 줄줄이 붙어 있듯이 말입니다. 예전 애갑니다마는, 어떤 때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인간도 한 나무에 붙어서 저렇게 진똥물처럼 뱉아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넓고 앞뒤가 막히지 않고 한 마음 한뜻으로서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이다 공했다든 그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살던 그 인과가, 예를 들어서 남을 이익하게 해서 선업을 받은 것도 있고, 남을 악하게 해서 악업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건 단순히 참회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보고 꿰뚫어서 되는 것도 아니며, 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못났든지 잘났든지 남을 막론해 놓고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면서 그릇을 비워야 업이 녹아져서 표현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아만심을 가진다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몸 속에 있는 그 중생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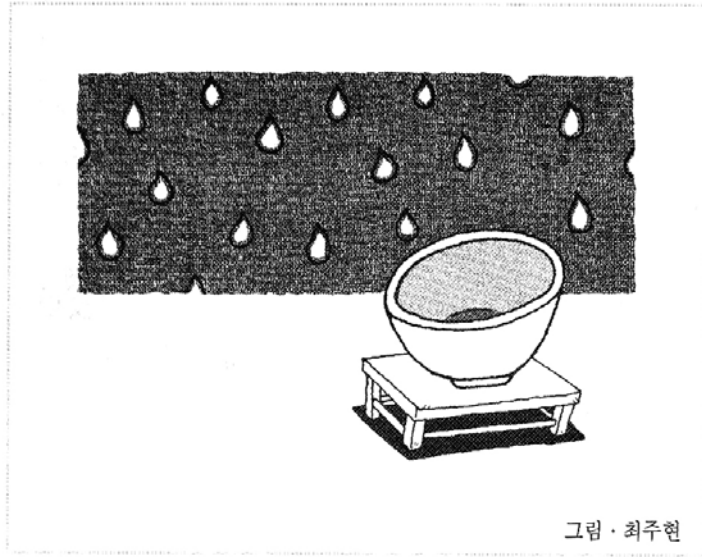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물질세계 모두空虚 보고들은 사이 없어 내가 물같은 마음 가질때 물과 한마음

하기가 바랍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서로 질문을 주고 받는 한마당입니다.

한 마음, 꽃 한송이, 한자리, 다보탑의 반좌를 내준, 한발, 진똥물 발 하나도 빼놓지 않은 것이 한답입니다. 이다 이겁니다. 진똥물 발도 발은 발입니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해서 부처님 발이 반듯하게 생겨 공발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발이 한발로 이 자리를 같이 디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만이 위대하고 우뚝하게 선 것인 양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진리가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몸이 있고 움직일 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도록 마음이 비어야 실오라기 하나 버리지 않는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서 남 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차이에 따라서 대 기 설법을 하셨지만은 우리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등

문서답처럼 여러분한테 던지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산으로 산으로 다닐 때인데 어느 날 하도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이어서 캄캄한 밤이었는데, 자성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까지 10년동안을 다니면서 얼마나 봤느냐" 그러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왜 대답이 없습니까? 얼마나 봤느냐고 물었다는데

(신도: 본 것이 없습니다.)
물질세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리벙벙했죠. 나를 발견해서 체적질을 받으면서도 어리벙벙했죠. 내가 어리벙벙했단 생각이 났다고 해서 다 자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병병하게 가만히 앉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이나 봐도 하루 본 것만도 못하고 한 찰나 본 것만도 못합니다." "이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봤던들 무엇을 봤다고 말하리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캄캄한 데를 또 일어서서 가는 데 또 "너는 캄캄한 데 다닐 때 보이더냐 안 보이더냐"하고 물으신단 말입니다. 이 소리는 참고적으로 하는 애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방망이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질 겁니까, 맞을 겁니까?
그러니 이 마음도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이 커져서 여러분 스스로 방 망이를 들어야 나도 방망이를 들죠. 여러분이 방망이가 없으면 나도 방망이가 없어요. 낮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고 했는데 밤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는 애 갑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며 밤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고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지껏 공부했으면서 뭐라고 대답도 못 해요.

(신도: 순간순간 돌아가는 마음이 아

니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도: 밤낮이 돌아다니는) 밤에 본 건 얼마나 보고 낮에 본 건 얼마나 봤느냐는 무슨 영동하개...

아니 사발에 담을 걸 조그만 종지에다 담고 그리고 접시에다 담고 있으니 그게 말인거요.

물은 어엿하게 컵에 담아야 하고 밥 먹을 땐 숟가락 대접에 담아야죠. 밥은 주발에 담든지 공기에 담든지 그렇 거요. 요샌 또 접시에다 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접시에다 먹든지 주발에 먹든지 그런 것은 흠잡지 않을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라구요. 대답할 수 있는 대로 해봐요.

(신도: 스님 질문에 답변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공부를 하면서 느낀 바를 스님 질문에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제 마음을 보면 낮에도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밤에도 역시 꿈에도 보고 제가 느낄 때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꿈에도 제가 제 몸을 중심으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하고 상관없이 수없이 봅니다. 우선은 그렇게...)

그건 부처님의 가르친 그 뜻에 의해서 이 진리의 도를 모르는 소립니다. (신도: 주야장창 다 봐도 눈 깜짝할 새 없다.)

... 뼈와 살이 다 합쳐져야 될텐데, 가족밖에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대답은 아직 모르는 단계예요.

(신도: 스님께서서 공부 가 되신 만큼 보

입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것이요. 또 대답할 사랍?

(신도: (쪽지를 드리고 나서) 마음으로 자기가 배풀 줄 알아야지, 배풀 줄 모르 면 뒤집지 불평이고, 생활에서 부딪쳐 봐야 알고... 저는 말 못하는 짐승하고 부딪쳐 봤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인데도 내가 사냥해 하면 짐승도 사냥해 하더군요. 내 마음을 그 짐승한테 쥐웠더니 그 짐승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은 소가 별안간 막 뛰고 그러 더러구요. 소가 뛰면 소도 다치고 지도 다치기 때문에 내 마음

을 쥐 가면서 달래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넘어졌습니까. 소에게 마구 짓밟히는 데 그때 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소도 죽고 지도 죽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러면 안된다' 그러면서 휴구멍이에 쓰러져 순간 마음을 뱉더니 소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에게 짓밟혀 병이 들었지만, 소한테 치여서 눈에 쓰러져 부딪쳐 봤더니 소도 그제서야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잡이란 것이 참 쉽고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줄줄 모르던 말 못하는 짐승도 나한테 피해를 주더러구요.)

마음공부의 수행을 잘해 가고 있는 중

입니다.
(신도: 스님의 그 말씀은, 밤에 본 것이 얼마나 있으며 낮에 본 것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밤에 봤다는 것은 수천 수만의 별들을 보았어도 그 본 것이 없고 또 낮에 많이 보았다 해도 그 나름대로 지워나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했는데 마음이 있으면 좀 내보 보세요.

(신도: 마음도 그 마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뿐입니다.)
잘 다들어요. 그 뜻은 아주 가혹한데, 다들어야겠어요. 알았죠! 무우·배추를 갖다 놓고 양념해서 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먹게끔 하십시오.

아까 거사님이 소와 함께 실천해 가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월정사에서 있었던 애 갑니다. 내가 20대 때의 애 갑니다. 월정사에서 스님네들이 단식하면서 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정진

16면으로 계속

선업이든 악업이든
나를 다스려서
그릇을 비우고
업이 녹아져야
나 발견 할수 있어

이라고 하는 그 뜻도 거기 들어 있으며, 일체 생활하는 법이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악과 선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말입니다.

마음,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는 그 두 가지 중생과 부처, 즉 둘이 아닌 그 도리가 얼마나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몸이 지니고 있는 생명들의 그 의식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색깔도 아니고 불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에 광대무변하다는 애 갑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누가 아신다면 생활해 나가는데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은 집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듣는 것과 보는 데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의 진실한 그 참마음은 어디 가고 그저 나오는 대로 움직이죠.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가 조금만 언짢은 말을 해도 화를 벌컥 내는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은 뭐 더 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본다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나도 부처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아만심을 가진다면 '나'라는 욕심이 들어가서 더 공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몸 속에 있는 그 중생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두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1

남이 준 씨, 내 씨를 함께 마음에 묻고.

내가 있기에 남한테 따귀도 맞고, 내가 있기에 불교를 찾고, 내가 있기에 우주가 있다. 내가 나오지 않았다면 '고'도 없고, '별'도 없고, '도'도 없고 세상도 없다. 내가 있기에 모든 게 있다. 일체 만법이 나로부터 벌어지고 나로 인해 생겼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그때가 태초이고 내 몸 난 것이 화두이다. 그러므로 나를 근 본으로 잡아서 놓고 또 놓으면서 나두고 들어가는 공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

몸 자체가 화두다. 태어난 자체가 화두다. 일 자체가 화두다. 이 공적한 우주의 모습이 화두다. 여기에 다시 화두를 덧붙인다면 어느 때 무한으로 깊은 세계를 다 보겠는가.

참 나와 생각, 육신의 삼합이 이뤄져야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 삼합이 아니므로 사람 하나 태어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라 할 참 나가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고, 업식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고, 부모의 정혈이 아니었다면 태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나온 소식을 알려면 '나'는 자리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따로 화두를 들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완전수가 없어도 안되고 차가 없어도 안되고 기쁨이 없어도 안된다. 생명이 없어도 안되고 분별이 없어도 안되고 마음 내는 게 없어도 안된다. 그러니 어느 게 놓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 하겠는가. 동틀어 그냥 들고 나는 대로 일심요 화두인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 있고, 생각을 낼 수 있음으로써 움직인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명도 어디 있겠는가. 자신이 곧 화두임에도 화두에 화두를 거듭 든다면 접테기에 접테기를 덧붙이는 것과 다름없고 굶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된다.

사람에게 분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는 것을 두고 이뤄꼬? 하지 말고 뛰어 넘어라. 생활이 그대로 진리이고 도이고 여여함이고 심성의 과학이다.

흔히들 나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 나로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것이지 따로 무엇이 있어 찾는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찾는다'는, 망상을 끊는다'는, 또는 이놈이 무엇인고 하며 거기에 매인다면 몇 천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격이 되기 쉽다. 지금 그대로가 삼매이고, 그대로가 참선이



고 그대로 화두인 줄을 알아야 한다.

살아가는 생활이 화두이자 참선에게 누구에게서 화두를 받을 것도 줄 것도 없다. 자신의 존재가 바로 화두인데 따로 화두를 받아 가지고 들었다 놓았다 하다 보면 참 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 된다. 남이 준 화두는 빈 깃털 돌리는 것이요 헛바퀴 도는 것이다. 시대가 변천해 가는 대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따로 화두를 들고서는 급변하는 지금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진 현대인에게 과거와 같은 화두 참선은 오히려 마음 공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천천히 공안 중에 한두 가지 알았다고 대답을 해 보았자 별 게 아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이 육신 뭉쳐진 것을 보아라. 공부하려면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한다.

석가세존 당시에 화두 주는 것 보았는가? 그대로 사방이 푹 터져 내가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고 나오는 데로 나오는 것이지 왜 남이 주는 화두를 들고서 물지도 나지도 못하는가.
몸 밖으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고, 몸 밖으로 벗어나야 몸을 굴릴 수 있고,

지구 밖으로 벗어나야 지구를 굴릴 수 있다. 이 뭐꼬? 하면서 언제 자기를 생각해 보겠는가.

화두란 본래 모든 걸 거기에 넣어 다 돌리라는 뜻이다. 화해서 나두고 돌아가는 게 실상의 이치이거늘, 그렇기에 돌리라 했는데 돌리지는커녕 화두라는 것을 들고 놓지조차 못하니 맛을 볼 수가 없다. 이 뭐꼬? 주었으면 사랑으로 고정 관념을 짓지 말고 돌리라고 한 것인데 돌리지는 않고 들고 있으니 안되는 것이다.

돌과 돌이 부딪쳐야 불이 번쩍 난다. 그런데 돌을 양손에 들고 이 뭐꼬?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무엇이 쓰러는 가. 번쩍! 하고 내려놓고 또 번쩍 하고 내려놓으면 되는 것을 '어느 큰스님이 주셨다'는 생각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느라 불씨 나와 화두가 들이되었고 짐작이 없어서 잘못 들어가는 것이 된다.

남이 준 씨와 내 씨를 함께 마음속에 묻어라. 하나로 놓고 돌리면 인과 연이 제합되어 짝이 된다.

협찬: 한 마음